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의 3.3% 밖에 안 되는 작은 면적이지만, 서울시민의 주요한 일터이자 삶터이며 기존 제조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총량제에 따라 용도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공장이적지 및 주거혼재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가 필요하나 부지면적의 10%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정비사업의 추진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9.12.16. 중앙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정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복합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면적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위한 시설에 기숙사 외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